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중 대인관계에 관한 연구

이경순

동주대학교 물리치료과

A Study on Interpersonal Relations on Clinical Practice of Physical Therapy Students

Kyung-Soon Lee

Dept. of physical therapy, Dongju College

ABSTRACT

Background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nformation for making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 by understanding the degree of difficulties of personal relations that physical therapy students may have on clinical practice. **Methods** : The study has been made based on the survey results of 10 university that completed clinical practice physical therapy students. The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direct contact and mail between October 1 and December 10, 2013, and analysed 291 survey sheets. **Results** : The results reveal that clinical instructor's attitude toward students was satisfying(71.82%). The results reveal that students felt convenient when faced with other department staffs in the hospital(70.44%). The results reveal that students didn't feel uncomfortable when they addressed themselves to patients(83.85%). The results reveal that students didn't feel uncomfortable when they were working with other college students(74.57%). **Conclusions** :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educators who are developing clinical practice programs and clinical practitioners should consider stressors during clinical practice and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to physical therapy students.

Key words : clinical practice, interpersonal relations, physical therapy students

I. 서론

최근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졸업 후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능력 단위에 따른 직무교육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러한 현장실무중심 교육은 대학과 산업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건계열 학생들의 임상실습은 강의실에서 배운 학습을 실습현장으로 확대한 구조적 제공을 말하며 학생들이 전문직으로 갈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Zhang과 Xu, 2000). 또한 요즘 건강과 재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물리치료사의 다양하고 확대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역할 수행을 위해 물리치료과 학생들이 이론적 지식을 임상실무에 적용하고 보건의료인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에서 임상실습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김진일과 이정순, 2011).

임상실습은 학생들에게 환자치료뿐만 아니라 병원 조직 내에서 구성원 간의 대인관계와 상황에 따른 대처능력 향상 및 전공직무능력과 졸업 후 구체적인 진로설계에도 도움을 준다. 그리고 임상실습 경험이 학생들의 의사결정과 자기효능감으로 연결되는 임파워먼트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강영한과 박종삼, 2012).

임상실습기간 동안 학생들은 임상물리치료사를 그들의 역할 모델로 인식하고 미래를 예상하며, 단순히 지식과 기술을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Cope 등, 2002; Dunn 등, 2002).

보건계열 학생들의 임상실습 시간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중요성이 강조되는 반면 임상실습으로 인한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임상실습을 처음 경험하는 학생의 경우 임상현장의 다양한 상황 파악의 부족, 실습내용에 대한 이해부족, 낮은 환경과 환자들의 학생에 대한 태도 및 구성원들과의 관계 등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실습에 불만족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이 있다.

임상실습환경, 실습학생과 실습교육담당자와 관계, 실습학생과 조직구성원과 관계, 현장에서 실습학생 역할의 모호함 등이 임상실습에서 주된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실습교육 운영을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실습 참여 태도를 유도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스트레스 요인을 감소시켜야 한다(장미화와 김주후, 2014).

물리치료과 학생들은 실습기간 동안 환자 및 환자보호자, 현장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들과 관계에서 대인관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심리적 장애 등 여러 가지 건강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김진일과 이정순, 2011). 만일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리치료사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임상실습에 적응하지 못하고 임상실습 만족도가 저하되어 졸업 후 물리치료사로서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Park과 Jang, 2010).

Kim과 Lee(2005)는 간호학생들이 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대인관계 갈등, 환자와의 갈등 등을 들었고 Whang(2006)는 의료인의 태도, 환자와 보호자의 태도, 실습환경, 실습상황, 역할갈등, 과제물, 학사 일정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다.

형희경 등(2014)은 임상실습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환자와의 관계에서는 표준화 환자를 통한 실습, 다양한 학습방법을 통한 환자간호에 대한 자신감과 의사소통 능력 함양이 중요하다고 보고했다. 최근 간호대학 학교와 학생 수의 증가로 인해 동시에 여러 대학에서 여러 학생이 실습을 나오게 되면서 타 대학 실습학생들과의 비교 또한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내고 있다(형희경 등, 2014). 일반적으로 보건계열 학생들은 임상실습 중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을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냈다(강영한과 박종삼, 2012; 성환경, 2007; 형희경 등, 2014; Kim과 Lee, 2005).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s)는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도전과 반응이며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이다(권석만, 2005). 또한 사회화의 기본이라는 관점에서 초기 인간관계론은 귀

속에 대한 공통의 욕구를 가지며, 조직 내에서 유용한 존재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면 조직의 목표에 적극 협조 순응을 한다(Forsyth, 2006). 대인관계란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으로 생성되고 유지되며 기본적으로 소통의 관계로 형성되며, 개인의 사회적 관계는 동적인 산물이며 서로 간의 상호작용과 대화를 통한 정보교환에 의해 변화하고 유지된다(Carley과 Krackhardt, 1996).

대인관계는 자신을 파악하는 데 기본이 될 뿐 아니라 집단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하는 반면 불만스럽고 비효과적인 대인관계는 좌절감과 두려움 등으로 자기 신뢰감이나 자아존중감이 부족해 열등감을 갖게 된다(김선희, 1997).

최근 NCS 기반 교육과정에서 직무능력과 함께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 등을 포함하는 직업기초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임상실습현장의 흐름도 보건의료인들의 지적수준의 향상 및 기술의 향상과 물리치료사들의 분야별 전문화 과정으로 인해 물리치료 임상실습교육도 변해야 하며 학생들에게 질적인 임상실습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Adams, 2002).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물리치료과 학생들이 임상실습 중 직면하는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알아보고 효과적인 임상실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물리치료(학)과의 재학생 중 임상실습 과정을 마친 전국 10개 대학 물리치료(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2013년 10월 1일~12월 10일까지 각 대학에 설문지를 배부하여 수거하였다. 총 450부를 배부하여 320부를 회수하였으며 그중 답변이 불명확하거나 기재 누락 및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설문지 29부를 제외한 291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은 Han 등(2005)과 Lee 등(2004), Whang(2002)에서 개발한 측정도구를 참고하여 임상실습을 마친 학생들에게 사전검사를 통해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문항은 일반적 특성 7문항, 대인관계영역 20문항, 실습학생과 임상물리치료사와의 관계 5문항, 실습학생과 병원 내 타부서직원과의 관계 5문항, 실습학생과 환자와의 관계 5문항, 실습학생과 타 대학 출신 실습학생과의 관계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는 실습학생과 임상물리치료사와의 관계 .72, 실습학생과 병원 내 타부서직원과의 관계 .69, 실습학생과 환자와의 관계 .81, 실습학생과 타 대학 출신 실습학생과의 관계 .83이었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에서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107명(36.77%), 여학생은 184명(63.23%)이고, 학년은 3학년이 165명(56.70%), 4학년이 126명(43.30%)이었다. 실습기간은 4주가 26명(8.93%), 8주가 180명(61.86%), 12주가 8명(2.75%), 16주가 15명(5.15%), 기타가 62명(21.31%)이었다. 실습기관은 대학병원이 159명(54.64%), 종합병원이 84명(28.87%), 병원 및 의원이 19명(6.53%), 기타가 29명(9.97%)이었다. 실습기관 수는 1곳이 166명(57.04%), 2곳이 90명(30.93%), 3곳 이상이 35명(12.03%)이었다. 졸업 후 진로는 취업이 262명(90.03%), 진학이 22명(7.56%), 기타가 7명(2.41%)이었다. 전공만족도는 매우만족이 20명(6.87%), 만족이 132명(45.36%),

보통이 110명(37.80%), 불만족이 19명(6.53%), 매우불만족이 10명(3.44%)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
성별	남	107(36.77)
	여	184(63.23)
학년	3학년	165(56.70)
	4학년	126(43.30)
실습기간	4주	26(8.93)
	6주	3(1.03)
	8주	180(61.86)
	12주	8(2.75)
	16주	15(5.15)
	24주	3(1.03)
	기타	56(19.29)
실습기관	대학병원	159(54.64)
	종합병원	84(28.87)
	병원 및 의원	19(6.53)
	기타	56(19.24)
실습기관 수	1곳	166(57.04)
	2곳	90(30.93)
	3곳 이상	35(12.03)
졸업 후 진로	취업	262(90.03)
	진학	22(7.56)
	기타	7(2.41)
전공 만족도	매우 만족	20(6.87)
	만족	132(45.36)
	보통	110(37.80)
	불만족	19(6.53)
	매우 불만족	10(3.44)

(명, %)

2. 대인관계 영역별 특성 분석

1) 실습학생과 임상물리치료사와의 관계

(표 2)에서 ‘임상물리치료사의 교육이 전공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는 ‘도움이 되었다’가 202명(69.42), ‘매우 도움이 되었다’가 76명(26.12%), ‘도움이 되지 않았다’가 12명(4.12%)의 순으로 나타났고, ‘임상물리치료사가 임상실습 목적과 절차에 맞게 교육하였다’는 248명(85.22%)이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임상물리치

료사가 실습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만족스러웠다’는 ‘만족스러웠다’가 181명(62.20%), ‘만족스럽지 않았다’가 60명(20.62%), ‘매우 만족스러웠다’가 28명(9.62%)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물리치료사를 대하는 나의 태도에서는 61명(21.33%)이 소극적으로 응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실습학생과 병원 내 타부서 직원과의 관계

(표 3)에서 ‘병원 내 타과 직원과 만나는 일이 불편하였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그렇지 않다’가 155명(53.26%), ‘그렇다’가 62명(21.31%), ‘전혀 그렇지 않다’가 50명(17.18%)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 내 타부서 직원과 호칭문제로 불편했던 적이 있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그렇지 않다’가 156명(53.61%), ‘전혀 그렇지 않다’가 93명(31.96%), ‘그렇다’가 34명(11.68%)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직원들의 간섭은 255명(87.63%)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타부서 직원에게 도움요청이 어려웠다’는 215명(70.89)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3) 학생과 환자와의 관계

(표 4)에서 ‘환자가 실습학생에게 불만을 표현했다’는 107명(36.77%)이 불만을 표현했다고 응답했으며, ‘치료실에서 환자와의 원만한 관계가 힘들었다’에서 ‘힘들지 않았다’가 154명(52.92%), ‘전혀 힘들지 않았다’가 90명(30.93%), ‘힘들었다’가 34명(11.68%)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습학생 중 64명(21.99%)은 스스로 환자 대하는 것을 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환자를 보조하거나 도와줄 때 실습학생을 신뢰하는 것 같았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신뢰했다’가 212명(72.85%), ‘신뢰하지 않았다’가 55명(18.90%), ‘매우 신뢰했다’가 15명(5.15%)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실습학생과 타 대학 출신 실습학생과의 관계

(표 5)에서 ‘타 학교 실습학생과의 친분형성이 원활하였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그렇다’가 179명(61.51%), ‘그렇지 않다’가 45명(15.46%), ‘매우 그렇다’가 38명(13.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습 중 실습

표 2. 실습학생과 임상물리치료사와의 관계

내용	매우 그렇다 빈도	그렇다 빈도	그렇지 않다 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빈도	합계 빈도
임상물리치료사의 교육이 전공공부에 도움이 되었다	76 (26.12)	202 (69.42)	12 (4.12)	1 (0.34)	291 (100)
임상물리치료사가 임상실습 목적과 절차에 맞게 교육하였다	41 (14.09)	207 (71.13)	37 (12.71)	6 (2.06)	291 (100)
임상물리치료사가 실습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만족스러웠다	28 (9.62)	181 (62.20)	60 (20.62)	22 (7.56)	291 (100)
임상물리치료사가 실습학생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 같았다	27 (9.28)	98 (33.68)	132 (45.36)	34 (11.68)	291 (100)
임상물리치료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적극적이었다	34 (11.89)	196 (66.78)	57 (19.93)	4 (1.40)	291 (100)

(명, %)

표 3. 실습학생과 병원 내 타부서 직원과의 관계

내용	매우 그렇다 빈도	그렇다 빈도	그렇지 않다 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빈도	합계 빈도
병원 내 타부서 직원과 만나는 일이 불편하였다	24 (8.25)	62 (21.31)	155 (53.26)	50 (17.18)	291 (100)
병원 내 타부서 직원과 호칭 문제로 불편했던 적이 있다	8 (2.75)	34 (11.68)	156 (53.61)	93 (31.96)	291 (100)
각 부서에 관련 정보 및 환자 차트 요구 시 도움을 주었다	25 (8.59)	190 (65.29)	50 (17.18)	26 (8.93)	291 (100)
의사나 간호사 등 병원 직원이 나에게 간섭한 적이 있다	11 (3.78)	25 (8.59)	126 (43.30)	129 (44.33)	291 (100)
병원 내 타부서 직원에게 도움을 청할 때 어려움을 느꼈다	14 (4.81)	62 (21.31)	164 (53.36)	51 (17.53)	291 (100)

(명, %)

표 4. 실습학생과 환자와의 관계

내용	매우 그렇다 빈도	그렇다 빈도	그렇지 않다 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빈도	합계 빈도
환자가 실습학생에게 불만을 표현했다	10 (3.44)	97 (33.33)	129 (44.33)	55 (18.90)	291 (100)
치료실에서 환자와의 원만한 관계가 힘들었다	13 (4.47)	34 (11.68)	154 (52.92)	90 (30.93)	291 (100)
실습학생 스스로 환자를 대하는 것을 피한 적이 있다	6 (2.06)	58 (19.93)	134 (46.05)	93 (31.96)	291 (100)
환자가 실습학생의 말을 잘 들어주었다	92 (31.62)	173 (59.45)	19 (6.53)	7 (2.41)	291 (100)
환자를 보조하거나 도와줄 때 실습학생을 신뢰하는 것 같았다	15 (5.15)	212 (72.85)	55 (18.90)	9 (3.09)	291 (100)

(명, %)

표 5. 실습학생과 타 대학 출신 실습학생과의 관계

내용	매우 그렇다 빈도	그렇다 빈도	그렇지 않다 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빈도	합계 빈도
다른 학교 실습학생과의 친분형성이 원만하였다	38 (13.06)	179 (61.51)	45 (15.46)	29 (9.97)	291 (100)
실습기간 중 타 학교 실습학생들과 사적인 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다	39 (13.40)	138 (47.42)	64 (21.99)	50 (17.18)	291 (100)
실습평가 시 실습학생들 간에 과도 한 경쟁이 있었다	10 (3.44)	32 (11.00)	165 (56.70)	84 (28.87)	291 (100)
다른 학교 실습학생과의 자료 및 정 보의 교류가 있었다	25 (8.59)	152 (52.23)	59 (20.27)	55 (18.9)	291 (100)
실습 중 다른 실습학생에게 불만을 느낀 적이 있었다	20 (6.87)	79 (27.15)	116 (39.86)	76 (26.12)	291 (100)

(명, %)

학생들 간에 과도한 경쟁이 있었다'는 42명(14.44%)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실습학생과의 자료 및 정보 교류는 177명(60.82%)이 정보를 공유했으며, 114명(39.17%)은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 중 다른 실습학생에게 불만을 느낀 적이 있었다'는 '그렇지 않다'가 116명(39.86%), '그렇다'가 79명(27.15%), '전혀 그렇지 않다'가 76명(26.12%)의 순으로 나타났다.

IV. 논 의

실습학생들에게 임상실습 경험은 전공직무능력과 대인관계, 졸업 후 구체적인 진로설계에도 도움을 준다(강영한과 박종삼, 2012). 본 연구는 물리치료학생들이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인 대인관계문제를 알아보고 효과적인 임상실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실습학생들과 임상물리치료사와의 관계에서 '임상물리치료사의 교육이 전공공부에 도움이 되었다', '임상물리치료사가 임상실습의 목적과 절차에 맞게 교육하였다', '임상물리치료사가 실습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만족스러웠다', '임상물리치료사가 실습학생들 사이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 같았다', '임상물리치료사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적극적이었다' 이하 5개 문항이

모두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임상물리치료사의 교육이 전공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는 90%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고 이에 대한 이유로는 임상실습 교육은 학생들이 배운 이론을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통합하고 적용하여 살아있는 지식을 창조해 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이정화와 전은숙, 2009).

'임상물리치료사가 임상실습의 목적과 절차에 맞게 교육하였다'는 70% 이상이 긍정적이데 이에 대한 이유는 임상실습은 지식과 동기가 부족한 학생을 단기 간에 교육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육자의 입장에서 제한된 시간에 효과적인 실습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장동진 등, 2008).

'임상물리치료사가 실습학생을 대하는 태도'의 만족에 대해서는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70% 이상 나왔고 이는 학교, 학생, 물리치료사가 임상실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나은 임상실습을 위해서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로 나타났다(박일순과 이선희, 2007).

'임상물리치료사가 실습학생들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 같았다'의 문항은 '그렇지 않다'가 57%로 임상실습 병원에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계획된 실습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관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선생님들이 차별한다고 응답한 42% 학생들은 소극적인 성격으로 담당 임상선생님과의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문제, 실습병원의 내외부적인 환경,

본인의 실습준비 부족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임상물리치료사의 바쁜 업무로 인해 실습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가 어렵고, 학생의 소극적인 행동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학생들은 차별화를 느끼거나 현장실습에 만족감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미영(2006)은 임상실습지도 시 다양한 실습학생들이 현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실습과정을 수시로 평가하고 실습학생들에게 개별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상물리치료를 하는 나의 태도가 적극적이었다’에서 ‘적극적이었다’고 응답한 66%는 임상선생님이 현장교육의 장점을 이용하여 실습학생들이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해 학생들 참여를 유도하고 만족스러운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도방법을 모색했기 때문이다(장분자와 송경희, 2005).

학생과 병원 내 타직원과의 관계에서 실습학생들에게 조사한 결과 ‘병원 내 타직원과 만나는 일이 불편하였다’라는 문항에서는 70.44%에서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병원 내 타직원과 호칭문제로 불편했던 적이 있다’라는 문항에서는 85.57%가 호칭에 있어서는 불편함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서에서 필요시 부서 정보 및 환자차트 등 도움을 주었다’라는 문항에서는 73.88%에서 도움을 주었다고 나타났다. 최근 의료기관 인증제로 의료기관이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 부서 간 서로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실습병원들이 자동전산화시스템을 갖추고 있기에 타부서 및 간호사와 마주칠 일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실습학생들이 어려움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나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이 나에게 간섭한 적이 있다’라는 문항에서는 87.63%에서 간섭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서 간 직무가 전문적으로 분리되어 실습학생들에게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병원 내 타과직원에게 도움을 청할 때 어려움을 느꼈다’라는 문항에서는 ‘그렇지 않다’ 56.36%, ‘그렇다’

21.31%, ‘전혀 그렇지 않다’ 17.53%, ‘그렇다’ 4.81%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학생들이 타직원과의 관계형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학생들은 개인적 성격, 업무능력 등으로 도움을 청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내 전문가 집단에게 갈등을 많이 느끼는 것은 업무수행 시 의료기사에 대한 중요성과 전문성 인식 정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환자와 실습학생과의 대인관계에서 ‘환자가 실습학생에게 불만을 표현했다’라는 문항에서는 36.77%가 불만을 나타내며 63.2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전문적인 치료사에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환자가 실습학생에게 불만을 표현하거나 환자들의 치료에 대한 서비스 요구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실습학생들의 서비스 질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치료실에서 환자와의 원만한 관계가 힘들었다’ 문항에서는 ‘매우 힘들었다’ 4.47%, ‘힘들었다’ 11.68%, ‘힘들지 않았다’ 52.92%, ‘전혀 힘들지 않았다’ 30.93%로 83% 이상이 치료실에서 환자와의 원만한 관계가 힘들지 않았다고 나타났고, ‘실습학생 스스로 환자를 대하기를 피한 적이 있다’라는 문항에서는 21.99%가 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환자를 대하는 것에 있어서 실습학생이 소극적이거나, 환자의 위생상태 등 실습학생들이 처음 경험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하지만 환자와의 관계는 졸업 후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상실습 전후 실습교육에 표준화된 환자모델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리치료는 직무 특성상 환자와 함께 머무는 시간이 다른 보건의료인들에 비해 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와의 관계형성이 중요시 되고 있다. 임상실습을 처음 경험하는 학생들은 병원이라는 특수환경에서 사람들과의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따른 스트레스 중 대인관계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환자를 보조하거나 도와줄 때 실습학생을 신뢰하

는 것 같았다'라는 항목에 78% 이상이 실습학생을 신뢰했다고 나타났다. 이것은 황윤영(2005)의 연구결과에서 실습학생들이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해주는 노인환자들에게서 배려감을 느꼈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다른 실습학생과의 관계에서 '타 학교 실습학생과의 친분형성이 원활하였는가'에 '그렇다' 61.51%, '실습 중 다른 실습학생에게 불만을 느낀 적 있다'에서 '그렇지 않다' 39.86%, '다른 학교 실습학생과의 자료 및 정보의 교류가 있었다'는 60% 이상이 교류했다고 나타났다. 타 대학 실습학생과의 관계에서 실습생 입장에서 힘든 일에 대해서는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사료된다. '실습평가 시 실습학생 간에 과도한 경쟁이 있었다'에서 '그렇지 않다' 85% 이상 '그렇다'가 14% 정도로 나타나 실습학생들 간에도 누구나 잘해서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실습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과도한 경쟁은 아니라도 자기가 속한 집단 및 자기발전을 위해서 긍정적 경쟁은 필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실습기간 중 타 학교 실습학생과의 사적인 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다'에서 60%는 타 학교 실습학생과 친목도모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민(2013)은 대인관계능력이 낮을수록 건강한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직무상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관계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보건계열 인력수요를 위해 입학 정원 증원 및 학과신설 정책 등으로 물리치료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실습교육 병원보다 학교 수가 많아지면서 임상실습 현장에서도 교육에 대한 부담이 생기고, 대학도 실습병원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임상현장의 상황이 실습학생들의 직접물리치료 수행범위가 축소하여 독자적인 직간접 경험 축소를 실습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형희경 등, 2014).

임상현장의 실습제한에도 불구하고 임상실습의 중요성은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 임상실습기관 부족으로 인한 여러 대학의 동시실습, 환자권리가 강조되는 실습환경 등으로 실

습학생들의 스트레스 요인도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된다.

임상현장에서도 물리치료 고유업무 외에 임상실습 교육까지 하게 됨으로써 임상물리치료사의 스트레스도 가중되고 있다. 실습학생 및 임상물리치료사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임상현장과 관련된 산학협력관계 및 실습 전후 학생 개개인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중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의 정도를 파악하여 임상실습 시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임상실습과정을 마친 전국 10개 대학 물리치료과 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임상실습학생과 임상물리치료사와의 관계에서 임상물리치료사의 교육이 학생들에게 94.54%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목적과 절차에 맞게 교육되었다는 85.22%, 치료사가 실습학생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71.82%가 만족감을 나타냈다. 실습학생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에서 57.04%는 그렇지 않다, 42.96%는 차별한다고 응답했다. 실습학생들의 78.67%가 임상 물리치료사를 대하는 태도가 적극적으로 나타났다.
2. 임상실습학생과 병원 내 타부서 직원과의 관계에서 병원 내 타과직원과 만나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다가 70.44%, 호칭문제가 불편하지 않았다가 85.57%로 나타났다. 각 부서에서 필요시 73.88%가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병원 직원들은 학생들을 간섭하지 않았다고 87.63%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은 도움을 청할 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가 70.89%로 나타났다.
3. 임상실습학생과 환자와의 관계에서 환자는 실습학생에게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63.23%, 학생은 환자와의 원만한 관계가 힘들지 않았다

는 83.85%로 나타났다. 실습학생 스스로 환자를 피한 적이 없었다는 78.01%, 환자는 실습학생의 말을 잘 들어주었다는 91.07%, 환자를 보조하거나 도와줄 때는 학생들을 신뢰했다는 78%로 나타났다.

4. 임상실습학생과 다른 실습학생과의 관계에서 타 학교 실습학생과의 친분형성이 74.57%로 원활하였으며 사적인 자리를 60.82%가 가졌다. 자료 및 정보의 교류가 60.82%가 있었고, 85.57%는 실습학생 간 과도한 경쟁이 없었다. 또한 실습 중 다른 실습학생에게 65.98%가 불만을 느낀 적이 없었다.

위와 같은 결론을 통해 임상실습 시 학생들은 임상 물리치료사와의 관계, 환자와의 관계, 타 대학 실습생과의 관계, 병원조직 구성원과의 대인관계 형성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인관계 능력은 개인적인 문제가 높기 때문 비록 낮은 비율을 나타내는 항목들을 통해 학생 개인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실습 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영한, 박종삼. 임상실습을 경험한 보건계열 학생들의 임파워먼트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2;12(7):223-231.

권석만.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의 심리학. 2005;서울, 학지사.

김선희. 심성개발프로그램이 자기표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석사학위논문. 1997;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진일, 이정순. 임상실습이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불안 및 자율신경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 J Korean Biol Nurs Sci, 2011;13(2):102-108.

박미영.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에 따른 만족도와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연구. 치위생과학회지, 2006;6(4):243-249.

박일순, 이선희. 치과위생사 업무에 따른 임상실습 만

족도 연구. 치위생과학회지, 2007;7(4), 295-302.

성환경. 치기공과 학생의 현장실습 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남보건대학교. 대한치과기공학회지, 2007; 29(1):59-71.

이종민. 작업치료사의 대인관계능력 및 의사소통능력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인지재활학회지, 2013;2(1):81-97.

장동진, 안소운, 안지원, 김종훈. 임상연구 : 대한민국의 마취통증의학 임상실습 현황. 대한마취과학회, 대한마취과학회지, 2008;55(2).

장미화, 김주후. 교내 임상실습 및 현장임상실습의 참여태도, 만족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J Korean Soc Dent Hyg, 2014;14(3):407-15.

장분자, 송경희. 일부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 조사. 한국치위생과학회, 한국치위생과학회지, 2005;11(1):81-90.

형희경, 주연숙, 임신일.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개념도 연구. J Korean Acad Nurs Adm, 2014;20(4):394-404.

황윤영. 간호학생의 노인병동 임상실습 경험.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05;11(1):73-85.

Adams, V. Consistent clinical assignment for nursing students compared to multiple placem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002;41(2): 80-82.

Carley, K. M., & Krackhardt, D. Cognitive inconsistencies and non-symmetric friendship. Social Networks, 1996;18(1):1-27.

Cope, P., Cuthbertson, p., & Stoddart. Situated learning in the practice placement.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02;31(4):850-856.

Dunn, S.V., Ehrich, L., Mylonas, A., & Hansford, B. Students' perceptions of field experience in professional development: a comparative study. Nursing Education, 2002;39(9):393-400.

Forsyth, D. R. Group Dynamics. 2006;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Han KS, Han SJ, Choi JS. Level with clinical practice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of G college. J

- Korean Acad Dent Hyg, 2005;7(1):113-24.
- Kim SL, Lee JE.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5; 11(1):98-106.
- Lee SH, Kim SY, Kim JA.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 Soc, 2004;10(2):219-31.
- Park, H. J., & Jang, I. S.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0;16:14-23.
- Whang SJ.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to measure of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stress. J margaret pritchard college of nursing, 2002;14(1):35-54.
- Whang SJ.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 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6;12(2):205-213.
- Zhang, J., & Xu, Y. The nursing education system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volution, structure and reform.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2002; 47:207-217.

논문접수일(Date Received) : 2015년 4월 10일

논문수정일(Date Revised) : 2015년 4월 16일

논문게재승인일(Date Accepted) : 2015년 4월 28일
